

수종전환 방제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방제명령**

지자체 → 산림소유자
 지자체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여 방제가 필요한 산림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방제명령을 합니다.
 * 방제조치 명령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입목매매**

산림소유자 → 원목생산업자
 산림소유자는 입목매매계약을 체결해 수익을 얻고 원목생산업자는 소유권을 위임받아 벌채 등 허가 절차를 밟습니다.
 * 입목매매계약서 사본을 지자체(시·군·구)로 제출 *
- 수종전환 방제**

원목생산업자
 원목생산업자는 입목을 벌채하고 방제(파쇄, 훈증 등) 처리한 뒤 나온 산물을 산업용으로 활용합니다.
 * 방제 완료 후 원목생산업자가 지자체로 방제비용 신청 *
- 방제비용 지원**

지자체 → 산림소유자
 지자체는 방제작업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방제비용을 정산하여 산림소유자(원목생산업자)에게 지급합니다.
 * 방제(파쇄, 대용량 훈증, 열처리)에 소요된 비용 지원 *
- 조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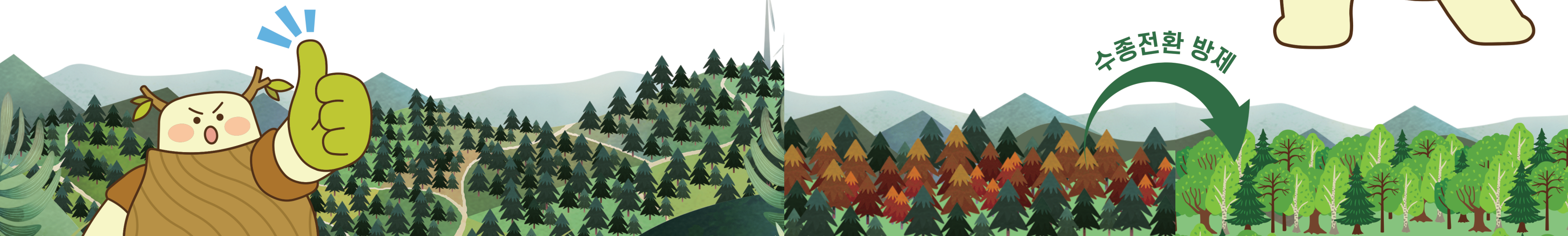
지자체
 지자체는 재선충병에 걸리지 않고 기후변화에 적합한 수종인지 고려해 산림소유자와 함께 수종을 결정하여 조림합니다.
 * 산림소유자 부담 없이 조림비용 100% 지원 *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숲
지킬 수 있습니다!**

수종전환 방제
쉽게 알아보기



수종전환 방제



“수종전환 방제”가 뭐예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심한 산림을
재선충병에 걸리지 않는 수종(나무종류)으로 전환하여
기후변화에 적합한 산림으로 바꿔주는 것이예요.



소나무재선충 피해 산림

수종전환 방제
수종 선택



기후변화에 적합한 산림



어떤 나무로
바꿔줄까?

지역별 기후에 적합한 수종을 추천해드리면
산림소유자가 원하는 수종으로 선택해요~!

추천
수종

편백, 스트로브잣나무, 백합나무,
벚나무류, 단풍나무, 고로쇠나무 등

수종전환 방제를 하면 산림소유자는 어떤 점이 좋나요?



1 재선충병으로 감염된
피해지를 방제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산불
대형화, 산사태 등 다른 재난
또한 예방할 수 있어요.

수종전환 방제는
산림소유자에게
이득이에요~

2 죽은 소나무들을
베어내고 기후변화에 적합한
다른 수종으로 바꿔주어
미관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볼 수 있죠.

3 원목생산업자와
입목매매 계약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4 파쇄, 대용량 훈증 등
방제비용을 지원해
준답니다.

5 조림사업 지원은 산림소유자의 비용 부담(10%)이 있지만
수종전환 방제는 **조림비용을 100% 지원**해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꼭 해야하나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를 방치하게 되면 결국 소나무들은
모두 말라 죽게 되고 죽은 나무들은 **지지력이 없어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마른 장작**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크게 번져 대형 산불이 될 가능성도 높죠.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은 옆으로 계속 확산하기 때문에
옆의 산에도 옮겨 많은 피해를 입게 돼요.
재선충병에 감염되어 죽은 빨간 소나무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하얗게 말라 쓸모가 없어지죠.



소나무재선충병은 재난이기 때문에 반드시 방제해야만 해요. **방제의 의무**는
산림소유자에게 있고 방제를 안하면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방제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죽은 소나무만 벌채하면 안되나요?



소나무재선충병 집단 발생지에 **죽은 소나무만 벌채**한다면 남아있는 소나무에
재선충병이 재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재발생하면 반복적으로 방제를
해야하기 때문에 **과다한 방제 비용**이 발생하고 **재선충병 피해 범위는 더 커져요!**

죽은 소나무 주변에는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감염된 나무가 아주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체 소나무류를 다른 수종으로
바꿔주어야 **원천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을 막을 수 있어요!**

건강해보이지만
감염된 나무

NO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려 죽은 나무

